

# “어릴적 세계지도와 등산이 나를 지도 밖으로 이끌었다”

## 전남대 '광주전남 특' 한책 콘서트 초청 강연 한비아 작가 인터뷰

“지금까지는 ‘바람의 딸’로 알려졌지만 앞으로는 ‘빛의 딸’이 되고 싶다.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고 밝히는 데 ‘그림의 힘’이라도 보태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빛의 도시’ 광주는 내게 친숙하고 향 같은 도시다.”

지난 18일 전남대학교(국제회의동 용봉홀)에서 열린 ‘2015광주전남이 읽고 특하다’의 작가 초청 한책 콘서트에서 만난 한비아 작가는 광주에 대한 친근함과 애정을 드러냈다. 콘서트가 끝나고 광주 일보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한 작가는 광주와의 인연, 월드컵전 구호 팀장으로 활동했던 현장 경험, 향후 계획 등을 소재로 이야기를 나눴다.

“일주일 전까지 난민 구호를 위해 시리아에 있었다”는 작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도처에서 수많은 난민들이 죽어가고 있다”며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그들과 나눌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 작가는 ““지금 당신은 왜 이 일을 하고 물었을 때 ‘내 가슴을 뛰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그래야 그 일에 100% 몰두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성공했다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작가가 일반에게 각인이 된 것은 국제 NGO 월드비전에 들어가 긴급구호 팀장으로 활동하면서다. 현재는 UN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이화여대에서 현장과 이론, 정책 등을 연계한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있으며 동시에 초빙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비야는 세려명이다. 지금은 외래어표기법을 통일해서 ‘비아’라고만 쓰지만 전에는 비야, 비아, 뽀야, 뽀야를 섞어 썼다. 지금은 비야(飛鳥)라는 한문 이름이 공식 명분이 되었다. 특이한 이름 덕에 세상 어디를 가든 이름만큼 에피소드가 생긴다”



**세계 도처 수많은 난민 죽어가 작은 것이라도 그들과 나눠야**  
**광주는 친숙한 고향같은 도시 사랑은 지금도 기다리는 중**

그러면서 그는 “15년 전 세계를 일주하고 돌아와 우리나라 구서구석을 둘러보고 싶은 마음에 전국을 방문했다. 그때 광주 광산구에 와서 깜짝 놀랐던 경험이 있다. 당시 내 이름과 같은 ‘비아’

(세려명 ‘비아’와 함께 ‘비아’를 섞어 썼다)라는 동네를 봤다. 마치 비아라는 지역을 방문한 것은 오래 전에 계획된 운명처럼 느껴졌다”고 회고했다.

한 작가는 어린 시절부터 ‘지도 밖으로 행군’할 꿈을 꾸었다고 한다. 자신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로 ‘지도’ ‘산’ ‘일기’를 꼽는다. 부모님은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어 집 안 곳곳에 세계지도를 붙여놓으셨다.

또한 아버지는 한 작가가 서너 살 무렵부터 산에 데려가곤 했다. 꼬마가 아버지를 따라 등산 다니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았고, 그것이 자존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작가로 활동할 수 있는 계기는 초등학교 때부터 꼬박꼬박 일기를 썼기 때문이라고 덧붙인다. 당시에는 그림을 크게 그리고 글은 조금만 쓰도록 돼 있었는데, 자신은 그 반대로 일기를 많이 쓰고 그림을 적게 그렸다는 것이다.

지금 한 작가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일은 ‘세계시민학교’다.(그는 시민학교 교장을 맡아 동분서주하고 있다.) 한 작가는 “세계시민학교는 국민들을 세계 시민으로 만드는 데 초점을 둔다”면서 “누구와 비교하거나 비교당하지 않는 그 자체로 소중한 사람이라는 자긍심을 갖게 하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바쁘게 살면 언제 사랑을 하느냐”고 물었더니 돌아온 답이 흥미롭다. “지금도 사랑을 기다린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예전 이라크나 남수단에 있을 때도 끌리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멋있어 보이지만 현장을 떠나면 ‘감정’이 이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한 작가는 “방탄 조끼 입고 땀 흘리며 일하는 한비아를 좋아하지, 정장 차려 입은 나를 좋아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웃는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파도 치는 날’

## 산악인 화가 박종석씨 개인전

10월 16일까지 여수 아르블루갤러리

작기에 채색한 실험 작품, 수묵채색 20여점도 출품한다.

석주 박종석 작가의 제16회 개인전이 10월 16일까지 여수 아르블루갤러리에서 열린다.

산악인 화가로 잘 알려진 박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히말라야 13좌 탐방과 아마존 정글 탐험, 중남미와 아프리카, 인도와 동남아 국가 및 중국 각처를 여행하면서 그린 스케치와 작품 일부를 화첩으로 엮어 선보인다. 또 전통수묵에 한국화 기법을 더하는 연구 과정에서 제작된 ‘파도 치는 날 이 배를 저어...’, ‘카일라스의 성산’ 등과 나무와

특히 가로 길이가 약 5m에 달하는 대형작품 ‘파도 치는 날 이 배를 저어...’는 박 씨가 히말라야를 등산하며 느낀 점이 표현됐다. 푸른 배경을 바탕으로 빼죽 솟은 산맥과 구름들 위로 강렬하게 채색된 노란빛의 별은 인간의 맑은 마음을 상징하고 있다. 박 씨는 호남대 미술학과와 조선대 대학원 순수미술학과를 졸업했으며, 제6회 광주미술상, 제2회 서암전통문화대상 등을 수상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그 따뜻했던 한가위 ‘달마중’

대인예술시장 예술인창작스튜디오 내달 2일까지 ‘세시봉 전시’

대인예술시장 예술인창작스튜디오 다다와 별장 프로젝트는 다음달 2일까지 ‘달마중’을 주제로 9월 세시봉 전시를 연다. 이번 전시는 지역 작가 26명이 참여해 한가위를 맞아 가족과 공동체의 가치를 되새겨보는 기원을 대보름달에 담았다.

강선호는 달을 보며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김제영의 작품에서는 옥토끼들의 방아 찧는 소리가 요란하다. 이다애와 전현숙의 달에는 복이 넘쳐난다. 강영숙은 오방색 송편으로 달 모양을 형상화했고 금주현의 달은 추석이 오기 전 동그란 마음을 만들기 위해 준비 중이다. 이혜리는 타오르는 불꽃을 통해 불과 재산을 담당하는 부부막신인 조왕신을 기리고 서영실의 ‘슈퍼맨’은 추석 다음날 볼 수 있는 슈퍼 문(super moon)을 영접한다.

또 박재원과 김향득은 추석시장 풍경의 어제와 오늘을 대비시켜 보여주고 윤남웅은 조그만 꾸러미로 한가위 풍경을 재현한다. 이외에도 박성린, 강정원, 나은숙, 정진영 등이 참여했다. 문의 010-2620-8614.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이다애 작 ‘달빛 아래’

## 학생·시민 등 600여명 ‘긍정성의 용기’에 공감

### 전남대 ‘한책 콘서트’ 현장

통로·출입구까지 청중들 꽉차

“여러분은 언제 가슴이 뻥 찢어 있나요? 비록 지금은 불이 활활 타오르지는 않지만 가슴 깊은 곳에는 여전히 불씨가 남아 있지 않은가요?”

전남대학교(총장 지병문)가 주최하는 ‘2015광주전남이 읽고 특하다’의 작가 초청 한책 콘서트에서 ‘1그램의 용기’ 저자 한비아(57) 작가가 강사로 나서 용기 있는 삶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콘서트에는 600여 명의 청중이 몰려 통로와 출입구까지 메울 정도로 한책 콘서트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특히 동신고 독서클럽 ‘기독모’(기독교 독서 모임) 등 각급 학교에서 독서모임을 꾸리고 있는 십대 학생들도 다수 참여해 책을 매개로 세대가 하나 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특 콘서트에 참여한 학생과 시민들은 한 작가의 이야기에 공감을 표하며 용기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래 전에 한 작가의 ‘그건 사랑이었네’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등을 읽었다. 그 책들이 내게는 멘토처럼 다가왔다. 나 또한 언젠가는 세계 여행을 할 계획이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구호활동도 하고 싶다.”(이예리 경영학과 2학년)

“한 작가는 인도주의 정신을 실천하는 명사다. 누구나 한번뿐인 인생인데, 남을 위해 사는 것이 멀처럼 쉽지 않다.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자로서 무엇이



지난 18일 전남대학교가 주최하는 ‘2015광주전남이 읽고 특하다’의 작가 초청 한책 콘서트에서 ‘1그램의 용기’ 저자 한비아(57) 작가가 강사로 나서 강연을 하고 있다. <전남대학교 제공>

가지 있는 삶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다.”(권명숙 전남대 중문과 강사)

한 작가는 강연 내내 용기는 강한 사람, 성공한 사람들만 가지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즉,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일 때, 딱 1그램을 보태면 긍정적으로 기운다는 게 ‘1그램’이 지닌 힘이자 의미라는 것이다.

강연을 듣고 시야가 넓어졌다는 시민 양창하(방림 1동) 씨는 “한비아 작가의 말은 결국 혼자만 잘 사는 용기가 아닌 사회 공동체가 골고루 잘 사는 방법과 고민에 대한 모색이다. 작금의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긍정성의 용기가 아닌가 싶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 광주현대무용단 전국무용제 금상 김현재씨 연기상

지난 16일 전북대 삼성문화관에서 막을 내린 제24회 전국무용제에서 광주 대표로 출전한 광주현대무용단이 금상을 수상했다.

한국무용협회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 15개 시도 대표팀이 참여, 경연을 펼쳤다.

채운화씨가 안무를 맡은 수상작 ‘베블런’은 소비가 미덕이 되어버린 사회에서 풍요와 쾌락,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위해 무한 경쟁을 벌이는 현대인의 모습을 몸짓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안무를 맡은 채씨는 조선대 무용과와 동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동강대 외래교수, 광주에 고실기 강사로 활동중이다.

조선대 무용과를 졸업하고 현재 동대학원에 재학중인 단원 김현재(사진)씨는 연기상을 받았으며 김철희씨는 무대예술상을 수상했다. 광주 지역 무용단은 지금까지 8차례 대통령상을



광주현대무용단 ‘베블런’

수상했으며 금상과 은상은 각각 5번과 6번 받았다. 한편 이번 무용제의 대상은 대전의 포텐아트컴퍼니가 수상했으며 전남대표로 참여한 (사)나라발레시어터는 은상을 받았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프랑스가구 런칭**

**이태리가구, 소품**

**명화가구**

**홍스케이스** SINCE 1990 [www.hong79.com](http://www.hong79.com) 광주 동구 장동 58-15 **가구빌딩 7개층** ☎ 1899-0240